

트러스트무용단 우수레퍼토리 앵콜공연 \_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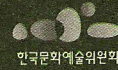
# 올리브나무 레지스

2008. 4. 18(금) 20:00, 19(토) 18:00, 서강대 메리홀

안무 김형희 | 연출 김윤규 | 주최 트러스트무용단 | 주관 TDC기획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TDC후원회, 아름

다운 출세상 [www.esangdance.net](http://www.esangdance.net) | 예매 사랑티켓 [www.sati.or.kr](http://www.sati.or.kr),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 | 문의 트러스트무용단 02-879-0613 [www.dance.ne.kr](http://www.dance.ne.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SARANG  
TICKET  
사랑티켓





## “함께 산다는 것” All Live...

— 작품설명 — 김윤규 — 연출

멕시코 농민의 가난과 희생 그리고 투쟁의 역사가 담긴 '라 쿠카라차'를 부르자. 어린시절 즐겁게 불렀던 '라 쿠카라차',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전진하는 사람의 행렬, 그 모습 희한하다 해도 함께 살아갈 희망을 찾아 멈춤 없이 나아가자. 라 쿠카라차'는 스페인어로 '바퀴벌레'라는 뜻으로 남미 혁명의 역사가 숨겨진 노래이자 끊임없는 생명의 행렬을 상징한다. 성서의 십계를 주제로 만든 트러스트의 3번째 작품이며, 연작의 마지막 편인 "올리브 나무 All-Live"는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혹은 "네 이웃에 대해 ~하지 말라"의 계명이 전하는 오늘날의 진실에 관한 해석이며, 우리의 존재에 관한 성찰과 자유를 위한 노래다. 십계는 단순히 금하고 명하는 율법이 아닌 인간 존재에 관한 진실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지구 곳곳에서 계속되는 비극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작품의 주제이며 동시에 실제 비극의 주인공인 "올리브나무"는 그 본래의 표기와 달리 '모두 함께 산다.'는 의미의 "All Live" 라 표기했다. '춤으로 다시 보는 십계' 연작의 세 번째이자 완결편인 "올리브나무"는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앞서 두 번에 걸친 연작에 담지 못한 십계의 오늘날 의미를 담았다. 가까이로는 분단과 분열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멀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주변은 너무도 많은 다름이 있고, 그로 인한 비극의 현장을 우리는 늘 목격하고 있다. 존재론적 죽음과 존재론적 죽임, 이것은 뉴스 속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죽임이며, 그로 인해 우리를 또한 죽음인 것이다. 올리브 나무는 풍요와 평화의 상징이며,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많은 올리브나무가 찢겨지고 꺾여지는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속에 올리브나무는 죽어가고 그 자리는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하나를 꺾여지는 올리브 나무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이다. 우리의 일상은 이제 눈물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공존하고 있고, 이처럼 죽음이 드리워진 곳으로 부터 인간은 메마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은 잉여의 반복이며, 남아도는 것이 우리의 속을 파먹고 있다. 바로 잉여에 의한 비극이다. 이제 누가 올리브 나무 앞 물어 우리에게 내일을 전해줄까? "함께 산다는 것" All Live... 올리브나무의 죽음은 부정적인 결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는 노래가 되고, 우리는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노래부르며 나아가자. "라~ 쿠카라차~"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메시지를 올리브나무는 전하고 있다.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From the reality of division and disagreement in Korea, to the barriers between Palestine and Israel, the fighting that takes place every day is one of the real tragedies of this world. Are we really alive, even as we are being anesthetized by a waterfall of tragic news from all over the globe? Olive Tree : All Live is the last work in the Ten Commandments series and uses the tenth, "Thou shalt not covet," to reflect the commandments' modern meaning, which was not contained in the previous two works, Dekalog (2003) and Continuant (2005). Olive Tree : All Live is the last work in the Ten Commandments series and uses the tenth, "Thou shalt not covet," to reflect the commandments' modern meaning. The previous two works in the series, Dekalog (2003) and Continuant (2006), dealt with commandment five (Honor thy father and they mother and six (Thou shalt not murder). The title of Olive Tree: All Live is a play on the word "olive," which comes to mean "all live," according to the themes dealt with in this work. On television, online and on our way through life people are killing their neighbors, their classmates, themselves. Our death, too, is



## 세상 사람들과 함께 춤출 수 있는 날을 꿈꾸며

— 안무자의 글 — 김형희 — 트러스트무용단 상임안무, 대표

2006년 티베트의 수도 라싸를 단원들과 한 달 정도 다녀왔습니다. 산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보았고 느낄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기에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날 넘쳐나는 뉴스 속에 무감해지는 우리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중국으로 부터의 티베트 독립과 관련한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지라 불리는 그곳,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우리와 관계없을 법한 그곳이 저와 함께 티베트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올리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식탁과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중동의 올리브나무를 직접 보았다면, 한번이라도 그들의 식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식탁 앞에 놓인 뉴스들을 남의 일이라며 외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트러스트를 사로잡은 지난 2007년 트러스트의 한해는 작품 "올리브나무"를 향한 시간들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5년에 걸친 3편의 연작, 그리고 그 완결편인 "올리브나무"는 춤과 삶을 이어가려는 트러스트 10여년의 긴 여정 속에 이미 포태되어 트러스트의 운명과 함께 태어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번 공연은 작년 올리브나무의 첫 공연에 보내주신 성원과 공연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의 앙코르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한 작업자의 사랑은 마치 부모의 손가락처럼 모두 같다 하겠지만 이렇게 두해에 걸쳐 재공연에 임하는 트러스트의 입장은 어느 작업과는 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첫 공연 후 보내주신 소중한 후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들 속에 올리브 나무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여러분과 함께 만든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의 정성이 더해 졌으니 더 큰 사랑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한해를 넘어 작품을 향해 함께하는 트러스트 모든 가족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매일 땀으로 흠뻑 젖었던 춤꾼들의 멋진 모습은 물론 연주의 음 프로젝트,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의상디자인, 무대감독님, 용달아저씨까지 우리 모두가 무대에서 보여 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티베트공안국의 허가를 끝내 받지 못해 한 호텔 로비에서 조용히 춤추어야 했던 작품 "30일간의 꿈"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함께했던 티베트 사람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언젠고 다시 찾아가게 될 티베트에서는 그들과 함께 춤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올리브나무에서 받은 생태학적 이미지

—〈올리브나무〉 초연공연 관람후기— 남궁희수

재미있는 공연이라는 관계자의 평을 듣고 들어갔는데, 이런 깊이와 감동을 '재미'라고 표현해도 될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대무용은 자주 접하지 못하는데, 주제도 가볍지가 않았지만, 숨막힐 듯한 깊음 호흡으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공연의 스토리가 크고 작은 이미지들로 남았습니다. 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초짜 관객이지만 짧은 감상을 올려봅니다. 가진자들의 탐욕이 인간의 모습을 흉물스럽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던져진 것들을 주서모아 자기 것인양 적선하고 철조망으로 분리시킨 이들의 양심없는 만찬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니까요. 그 식탁에서 흐느끼며 씹지도 않는 쓰레기를 입으로 집어넣던 괴물스러운 인형은 병든 지구 또는 신음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나 아프게 흐느끼던지, '내가 안아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절로 나와 함께 울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토록 와 닿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소유, 이웃 나라의 소유, 또는 하나님의 소유, 아니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분 자체이신 것을 인간이 소유하고 욕심내느라 썩고 병들어 걸을 힘조차 없이 만들어버렸다는 아픔이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통 받던 자들이 서로 모여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남은 자들이 또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결국 마지막 남은 자조차 절규하며 쓰러져가는 모습은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의 공동체가 가지는 역설적 이기심 아닐까요. 화해와 살림이 아닌 분리와 죽음이었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멸망이라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쟁과 독재가 난무하던 시절의 소리가 진동하면서 고통스럽게 쓰러지고 빼앗기고 벗겨지는 사람들 속에서 전 계속 언제쯤 희망의 춤을 출까 하고 내심 해피엔딩을 기대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유치하더라도 무언가 마음을 펼 수 있길 절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듯한 소녀마저 가진 것을 빼앗겨 자유조차 묶여 몸부림 칠 때 절망의 극단에 가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만큼, 아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한편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끝내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더군요. 안무가님이 원망스러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겠죠. 함께 살기 위해 더 아파해야 하고, 더 자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 나눔보다 큰 올라이브(all live) 안에 신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끝끝내 무거운과 슬픔을 한가득 끌어안고 나와야했지만, 후반부의 소박한 연주를 평화의 이미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이들이 호흡을 고르고 연주하며 나가는 고요한 행진에서야 간신히 큰 숨을 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쟁의 상흔을 입고 살아가는 기지촌 여성노인들과 검붉은 억압의 고통을 살아낸 장기수 어르신들이 떠올라 더욱 마음이 아파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상상과 비약이 있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한 공연을 여러 번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는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번 보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밖에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다시 공연하신다면 꼭 보고싶네요. 훌륭한 공연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 가슴에 남을 공연이었습니다.



감독 김윤규 Kim Yungyu

이선영 Lee Sunyoung

박재영 Park Jaeyoung

김정현 Kim Jeonghyun

주정민 Joo Jungmin

김효신 Kim Hyoshin

송명규 Song Myounggyu

권예진 Kwon Yejin

이동명 Lee Dongmyoung

김종현 Kim Jongheon

신민 Shin Min

Javier Murugarren

연주 연리목 Yonrimog

옴브레 Ohmbre

심은용 Shim Eunyung

김영수 Kim Youngsoo

